

상해한국학교 인문학 토론 Festival 공고

1. 목적

한국 및 세계 사회에서 이슈가 되는 문제를 토론 방식을 통해 쟁점을 파악하고, 논리적인 근거에 따라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법을 배우며, 아울러 상대방의 타당한 근거를 수용하며 의사소통하는 능력을 함양하며, 세계시민으로써의 자질을 함양하고자 한다.

2. 운영 방침

- 가. 토론 FESTIVAL은 중등(8, 9학년), 고등(10, 11, 12학년) 5개부로 운영
- 나. 예선 및 본선 토론 FESTIVAL 참가는 팀별로 하며, 각 팀원(동일학년)은 3명으로 구성함
- 다. 예선은 제시된 주제의 토론개요서를 작성 제출, 개요서를 평가하여 본선대회 진출팀을 선정함
- 라. 본선에 진출한 토론팀은 담당교사 지도에 성실히 임하며, 토론 준비에 최선을 다해야 함
- 마. 토론 개요서 양식은 학교 홈페이지에 탑재,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출력물과 파일을 제출할 것

3. 인문학 토론 FESTIVAL 운영 일정

일정	운영 계획	세부사항
4.16 (금)	인문학 토론 FESTIVAL 공고	■ 예선전 및 본 대회 일정 안내 ■ 학년별 주제 제시 및 토론 개요서 제출 마감 안내
4.27 (화) 13:10	예선전 토론개요서 접수 마감	■ 학년별 토론개요서 제출서류 마감(13:10) ■ 학년별 토론개요서 심사
4.28 (수) 12:10	학년별 본선 진출팀 발표	■ 학년별 본선 진출팀(2개팀) 선정 및 발표(12:10)
4.29 (목) (7교시)	본선 진출팀 1차 사전교육	■ 토론 절차 및 유의사항 안내 ■ 학년별 찬성팀, 반대팀 추첨
5.7 (금) (7교시)	본선 진출팀 2차 사전교육 (사회자 및 진행도우미 포함)	■ 팀별 토론 준비 상황 점검 ■ 사회자 및 진행도우미 사전 교육
5.10 (월) (5~7교시)	사전 리허설	■ 팀별 기조 연설자 및 사회자 리허설 ■ 자리 배치 및 진행 도우미 리허설
5.11 (화)	인문학 토론 FESTIVAL 실시	■ 오전- 고등(10,11,12학년 순) 토론대회 진행 ■ 오후- 중등(8, 9학년 순) 토론대회 진행

4. 예선전 토론 개요서 심사 기준

항목	채점 기준	배점		
		10	7	4
쟁점 1.	논제가 요구하는 쟁점을 올바르게 선정하였는가			
	설득력 있는 근거들을 제시 하였는가			
	논증을 위한 추론과정이 타당 한가			
쟁점 2.	논제가 요구하는 쟁점을 올바르게 선정하였는가			
	설득력 있는 근거들을 제시 하였는가			
	논증을 위한 추론과정이 타당 한가			
쟁점 3.	논제가 요구하는 쟁점을 올바르게 선정하였는가			
	설득력 있는 근거들을 제시 하였는가			
	논증을 위한 추론과정이 타당 한가			
종합	문제의 접근과 해결방안을 창의적으로 전개 하였는가			
합계(100점)				

5. 학년별 토론 주제

학년	토론 주제	주제 선정 이유
8학년	촉법소년(만10~14세 미만)의 강력 범죄도 처벌해야 한다.	소년법은 특히 촉법소년(만10~14세)의 범죄의 경우, 처벌보다는 보호처분이라는 특혜를 줌으로서 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보장하고자 한다. 그러나 그런 특혜를 악용하여 소년범죄가 더욱더 흉악해지고 있다. 범죄에 대한 반성도 없어 대중들의 분노를 일으킨다. 그리하여 촉법소년을 보호하는 소년법을 개정 내지는 폐지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촉법소년의 범죄도 성인과 같은 처벌을 해야 하는가?
9학년	공직선거 투표의 선거의무제를 도입해야 한다.	1948년 95.5%의 투표율에 달했던 국회의원 선거 이후 우리나라 공직선거 투표율은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어 대표성이 의심받고 있다. 대의민주주의의 정당성은 시민들의 투표율로 확보된다. 그리하여 투표를 의무로 하고, 미참가자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선거의무제를 도입하려고 한다. 그러나 투표는 개인의 자유이며, 투표를 하지 않는 것 역시 의도적인 하나의 투표 행위라는 반론도 있다. 선거의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의무선거제는 도입되어야 하는가?
10학년	자발적 비혼모 허용해야 한다.	‘자발적 비혼모’란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 결혼을 하지 않은 채 아이를 낳아 기르는 여성이라는 뜻이다. 후지타 사유리가 2020년 11월 4일 정자 기증을 통한 득남을 고백하면서 여성 개인의 선택에 따라 친부 없이 아이를 낳을 권리를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는 아이가 부모의 사랑으로 양육되어야 한다는 전통적인 가족관 및 부모의 지위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아이의 의사는 전혀 반영되지 않은 자발적 비혼모, 허용해야 하는가?
11학년	인공지능이 지배하는 사회는 지속되어야 한다.	인공지능이 적용된 기술은 빠르게 우리 생활 속에 자리하게 되었다. 인류에게 최상의 편리함을 선사할 거라고 하는 인공지능, 또 한편에선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을 것이며 고도의 지능을 갖춰 인류를 파멸로 몰아넣을 거라는 두려움을 가져다주고 있다. 인공지능, 인간에게 축복인가, 재앙인가?
12학년	아프리카의 대다수 빈곤 국가 지원하는 해외원조(공적개발원조) 지속되어야 한다.	아프리카의 대부분 국가는 독재와 부패가 만연하다. 해외원조를 장기간 지원 했으나, 여전히 빈곤과 독재, 부패, 인권유린 또한 계속되고 있다. 해외원조의 한계, 기부의 역설, 국내의 원조 요구 등 다양한 근거들로 해외원조를 중단하고 국내 빈곤층을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아프리카 최빈국의 해외원조 계속 제공해야 하는가?

▶ 예선전은 「토론개요서」 심사

각 학년별 주제를 가지고 홈페이지에 탑재된 토론개요서 양식을 작성하여 이메일 zh411@skoschool.com으로 송부하고, 출력물을 3층 교무부에 제출

▶ 「토론개요서」 마감기한: 4월 27일(화) 13:10

▶ 문의: 3층 교무부 교무실 정윤교 선생님